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주택·고용·교통의 형평성 개선 위해 몽고메리
파크 프로젝트
산업·경제 외국인 재류자격 변경하여 운송 인력 공급

사회·복지 신탁제도로 저출산 해법 찾는 말레이시아
환경·안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도시교통 방치된 차량에 법적 제재 조항 마련한 충청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주택·고용·교통의 형평성 개선 위한 몽고메리 파크 프로젝트

미국 포틀랜드시 / 도시계획·주택

포틀랜드시는 최근 몽고메리 파크 부지 개발 계획 (Montgomery Park Area Plan) 초안을 시나리오 연구 결과와 함께 발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 부지에 고밀도의 저렴한 상업 시설을 개발하여 중위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 또한 저렴한 대중교통 시설인 노면전차(Portland Streetcar) 노선 확장으로 프로젝트 부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고용·교통의 형평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몽고메리 파크 프로젝트 대상지의 과거와 현재

- 토지이용의 흐름 변화
 - 서북부 포틀랜드(Northwest Portland)에 있는 ESCP 강철 주조공장과 포틀랜드의 상징적 건물 중 하나인 몽고메리 파크(Montgomery Park) 빌딩은 제조업, 공업, 상업 시설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으나 현재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음(그림 1)



[그림 1] 펜스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몽고메리 파크 프로젝트 부지 (출처: 필자 촬영)

- 주간고속도로(I-405) 진입로가 인접해 있어 오랜 시간 상업 및 공업 시설 부지로 사용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여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개발에 난항을 겪음
- 2024년 4월, 해당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 계획의 초안을 발표

프로젝트 주요 목표

- 토지이용 계획을 통한 주택 및 고용 문제 해결
 - 저렴한 주택 공급
 - 현재 이용되지 않는 거대 부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2,000 가구를 공급 예정. 이는 프로젝트 부지에 인접한 주거지역과 함께 하나의 마을에 속하는 것으로 도로, 주변 녹지, 상업 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음(그림2)



[그림 2] 프로젝트 부지 인접 주거지역 (출처: 필자 직접 촬영)

- 고밀도 혼합 토지이용 내 상업 시설
 - 저소득 주민과 주변 시민 모두에게 접근이 쉽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혼합 토지 내 고밀도 상업 시설이 개발 가능하도록 여건 형성
 - 이는 중위소득 혹은 그 이하 소득 수준인 사람들의 구매를 이끌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위 수준 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중교통 및 활동적 교통수단 네트워크 확대
 - 포틀랜드 노면전차(Portland Streetcar) 노선 연장 계획(그림 3)
 - 저소득 및 중위소득 수준의 주민을 위한 주택과 상업 시설에 대중교통 접근이 쉽도록 포틀랜드 주립대학-다운타운-동 포틀랜드(East Portland) 일부를 연결하는 노면전차(Portland Streetcar)의 노선 확장. 버스와 고속전철(MAX Light Rail)보다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여 해당 개발지역으로의 접근과

-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이 모두 수월해짐
- 포틀랜드에서 노면전차는 시민에게 저렴한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도 이용하기 쉬운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림 3] 프로젝트 부지와 가장 인접한 포틀랜드 노면전차 정류장 (출처: 필자 촬영)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다목적 트레일(multi-use path/trail) 계획
 - 노면전차 노선 연장과 함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활동적 교통수단 사용자들을 고려한 다목적 트레일도 함께 고려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활동적인 교통수단 이용 증진이 기대됨

시사점

-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시작된 계획
 - 포틀랜드는 다양한 인종, 성별, 소득 수준의 시민을 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형평성을 강조해 왔음
 - 몽고메리 파크 부지 개발 계획도 형평성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중위소득 수준의 고용 창출, 저렴한 대중교통 연결성 증대 등을 목표로 설정함

○ 저탄소·친환경 교통계획

- 기존 몽고메리 파크 부지는 제조업과 공업 중심 지역으로 주간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통량이 많은 반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노면전차 노선 연장과 다목적 트레일 설치로 지역 내 탄소 배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됨

<https://www.portland.gov/bps/planning/mp2h/mpap-proposed-draft>

<https://www.portland.gov/bps/planning/mp2h/mpap-proposed-draft/why-now-why-streetcar>

<https://portlandstreetcar.org/about-us/ridership-performance>

<https://efiles.portlandoregon.gov/record/15055411>

<https://www.portland.gov/bps/planning/mp2h/mpap-proposed-draft/implementation>

<https://efiles.portlandoregon.gov/record/16774341>

김 규 리 통신원, kyuri@pdx.edu

외국인 재류자격 변경하여 운송 인력 공급

일본 / 산업·경제

2024년 3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외국인 특정기능 재류자격’의 일부를 변경. 특히 이번 변경의 가장 큰 키워드인 ‘자동차 운송업’은 외국인 운전사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장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운송업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일본의 ‘외국인 특정기능 재류자격’

- 외국인이 소지할 수 있는 재류자격 중 하나인 ‘특정기능’ 자격은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인력을 충원할 대응책으로 2019년에 시행됨
 - 2024년 3월 29일에는 ‘자동차 운송업’ 외 ‘임업’, ‘철도’, ‘목재산업’이 추가됨

외국인 특정기능 재류자격의 ‘자동차 운송업’

- 자동차 운송업 재류자격 추가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직접적 대응으로 운송업계도 반기는 정책으로 평가됨
- 이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외국인 운전사로서 택시, 버스, 트럭 등의 운송업에 종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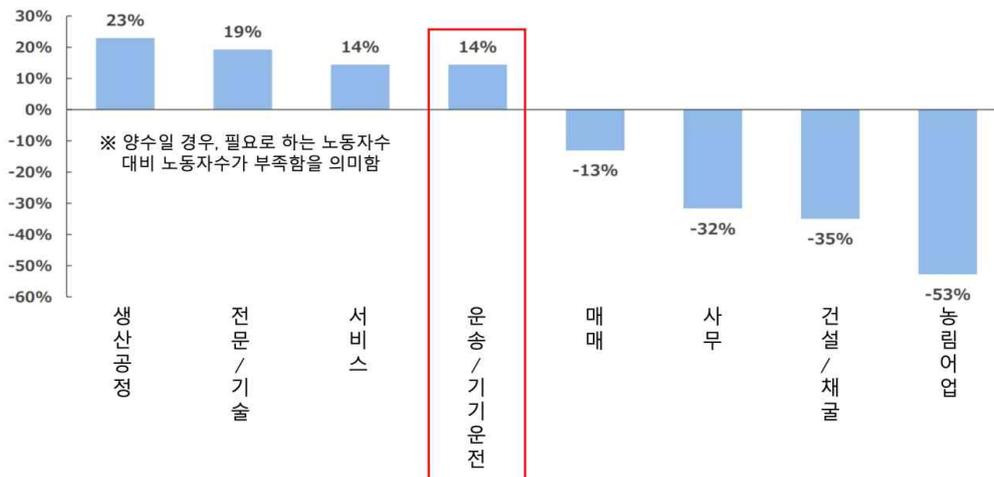
자동차 운송업 재류자격의 취득

- 자동차 운송업 재류자격의 심사는 종사 운송업에 따라 다소 다르나 공통으로 다음 사항을 따름
 - 자동차 운송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의 합격 여부
 - 일본 정부 발행 운전면허의 취득 여부
 -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이상의 일본어 능력 보유 여부
- 이상의 취득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상 외국인에게는 6개월 또는 1년의 ‘특정활동’ 재류자격이 주어짐

외국인 운전사의 확보를 통한 장점

- 인력 부족의 운송업계에 인력 충원
 - 일본 경제산업성의 미래 인재 비전에 따르면, 일본의 운송업계의 수요율은 향후 30년간 14% 증가할 전망이며, 인력 부족이나 노동 환경 악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힘
 - 따라서 외국인 운전사를 고용함으로써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 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기술 향상
 - 운송업계도 물류 품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기술과 드론 도입 등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해외 운송업에 종사한 외국인 운전사를 고용함으로써 해외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해, 일본의 운송 업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인바운드 대책
 - 외국인 운전사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
 - 이는 관광지에서 외국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이점이 생김
 - 결과적으로 해외 관광객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함

주요 직종별 필요로 하는 노동자수의 상대적 변화 (고성장 시나리오)



*세로축: 전체 노동자 수에서 차지하는 각 직종 비율의 변화율(2022년 → 2050년)

[그림] 일본 경제산업성의 미래 인재 비전에 따른 직종별 수요율 분석 그래프

(출처: <https://www.meti.go.jp/press/2022/05/20220531001/20220531001-1.pdf>)

자동차 운송업 재류자격 관련한 비판적 시선

- 외국인 운전사에 대한 신뢰 문제
 - 택시, 버스 운전사는 안전에 매우 민감한 직업임. 특히 일본의 택시, 버스는 서비스 면에서 전 세계의 극찬을 받는 대중교통 수단임
 - 따라서 외국인 운전자의 유입으로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을지에 관한 승객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관광업이 중요한 산업인 일본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음
- ‘자동차 운송업’ 재류자격 취득 조건의 높은 허들
 -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에 실패 시 비자를 재취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활동’ 기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자비 혹은 한정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

과제와 시사점

- 일본 내 트럭, 택시, 버스 운전사는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어 일본 젊은이들이 꺼리는 직업 중 하나임. 이는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직업으로 어필하기 어려움. 따라서 외국인 인력 유입에 급급하기보다는 일본 내 운전업계 종사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음
- 위에 언급한 비판적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교육과 고용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이러한 비판과 반성적 시각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생각할 거리를 안겨 주고 있음

<https://www.yolo-work.com/6713>

<https://diamond.jp/articles/-/346456>

<https://toyokeizai.net/articles/-/705009>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17598.pdf>

<https://www.meti.go.jp/press/2022/05/20220531001/20220531001-1.pdf>

신탁제도로 저출산 해법 찾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초기신탁금 지급,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으로 간주되는 만큼, 말레이시아의 신탁기금 초기지원금 지원 제도는 추후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도움을 주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음

정책 배경

- 말레이시아 저출산 문제
 - 말레이시아의 통계청(DOSM)에 따르면 2023년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¹⁾은 1.6명
 - 2010년 말레이시아는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을 기록했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1.8명, 20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6명으로 집계
-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
 -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 NPFDB)에 따르면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임
 - 2022년 가정 수입 조사(The Household Income Survey, HIS)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육비는 연간 가정 총지출의 1.4%를 차지
 - 이는 유럽연합의 2021년 가정 총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0.9%)보다 높은 수치

정책 세부 내용

- 신탁제도 ADAM50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신탁제도 ADAM50(Malaysian Children Trust Fund 2050)을 발표
 -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게 200링깃(약 5만 원)의 초기신탁금을 지원하고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자녀의 교육, 결혼, 출산 등 증여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기금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관리회사 PNB(Permodalan Nasional Berhad)를 통해 약 280만 명의 신생아가 신탁을 설정해 훗날 대학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신탁 수혜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최대 50만 링깃(약 1억 4,500만 원)의 신탁금 해지 가능
- EFS(Endowment Fund Sarawak) 기금
 - 사라왁주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사라왁 출생 신생아에게 1,000링깃(약 30만 원)의 초기신탁금을 지원
 - 부모가 사라왁주 주민으로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게 신탁금 지급
 - 수혜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신탁금 해지 가능

시사점

-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것을 기대
 - 신탁을 설정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
 - ADAM50 초기신탁기금 수혜자는 280만 명으로 매달 150링깃(약 45,000원)을 18년간 저축하는 경우 3만 2,600링깃(약 1,000만 원) 기금 회수가 가능
 - 말레이시아 대학 등록금은 2만 5,000링깃(약 725만 원)~7만 3,000링깃(약 2,120만 원) 수준으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초기 자금 부담 해소로 자금 선순환과 경제 활력 제고
 - ADAM50 기금과 EFS는 신탁기금 계좌 신설 시 초기 예치금을 지원해 부모 자산을 청년층으로 이전
 - 이를 통해 세대 간 자산 이동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소비 활성화와 국가 경제활동을 촉진
 -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신탁기금제도를 활용한 해법을 모색했으나 실패
 - 일본의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신탁제도는 조세정책 제정 등 현실적 어려움과 불평등 확산 등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음
 - 말레이시아의 신탁기금 초기지원금 지원 제도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저출산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눈여겨 볼 만한 제도임



[사진] 말레이시아 정부의 ADAM50 (출처: Mysumber.com)

<https://mprh.lppkn.gov.my/11-key-findings-that-will-share-the-futur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MY>

<https://www.mysumber.com/adam50.html>

<https://www.ekonomi.gov.my/en/socio-economic-statistics/household-income-poverty-and-household-expenditure>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hhexpcofog/hhexpcofog_2021/

<https://www.malaysiakini.com/news/407207>

<https://www.theborneopost.com/2017/10/28/free-200-trust-fund-units-for-babies-born-from-2018-to-2022/>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7/11/302940/410500-ptptn-borrowers-yet-repay-single-sen>

<https://www.theborneopost.com/2023/06/26/fatimah-94781-endowment-fund-sarawak-accounts-opened-as-of-may-31-2023/>

<https://dayakdaily.com/minister-kuching-records-highest-number-of-endowment-fund-applications-with-1046-in-2023/>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8/06/384402/adam50-may-be-discontinued>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인도 케랄라주 / 환경·안전

케랄라주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케랄라주 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과 피해 분야를 분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 이를 통해 지역 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책적 배경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2021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이 적용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인도 역시 2005년 1인당 GDP 대비 33~35%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이 요구됨
- 특히 케랄라 지역은 인도 남부의 해안지역에 위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으며 일부 취약한 구역도 포함되어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됨
 - 지역 내 평균 온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강수량 변화 등 이상 기후로 먹거리 핵심 산업인 농림수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

주요 내용

- 케랄라주 정부의 환경과 기후변화 부서(Directorate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의 주도하에 기후변화 케랄라주 행동계획(The Kerala State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2023-2030)을 실천 중임
 - 이 계획은 관련 91개 부처 간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수립되었음. 부분별로 취약 분야를 선별하여 이를 우선하여 대응하고자 함
- 지역 내 9개 취약지구를 인구 구성, 건강 및 복지 인프라, 수자원 현황 등의 기준을 기반으로 우선 분류하고, 우려되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생태계 내에서 자기 회복력을 구축하고자 함
- 산업활동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송배전 인프라 개선, 전기차 도입과 같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해 5,200억 루피(약 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력의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 2030년 전기 수요가 2015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화석연료 발전, 운송 및 산업활동 등이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전력 활용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 내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분야별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3,800억 루피(약 6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진행하고자 함
 - 농업 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회복력을 중점으로 하여 취약지역 중심의 생산 수익성을 개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기관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
 - 축산업 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육 공간 개선, 영양 보완, 질병 예방 등의 노력으로 동물 복지 향상과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향상
 - 어업 분야: 어족 자원의 변화 또는 감소에 대응하여 연안과 내륙 양식장 확대 및 연안지역의 해수면 변화에 대응하여 어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 임업 및 생물다양성 분야: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외래종을 통제하고 숲 보호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현장 인력과 관련 시설을 추가로 확보
 - 수자원 분야: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여 수자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수 대비 배수 시스템, 가뭄 대비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망 확보
 - 주민 복지 분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질병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 및 대응을 강화
- 이외 지역 내 연관 분야를 지속적인 모니터과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

정책 평가

- 이 계획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9개 지역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집중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2040년까지 지역 내 공급되는 전기의 10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케랄라 수소 경제전략(Kerala Hydrogen Economy Mission)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이 계획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 분야나 주요 부문에 대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하고자 함

- 뉴 ESG(New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같은 친환경 전략을 산업 정책에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자 함



[그림] 정책 제안서 표지 (출처: 케랄라 정부 웹사이트)

<https://climatechange.envt.kerala.gov.in/kerala-state-action-plan-on-climate-change-2023-2030/>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thiruvananthapuram/kerala-govt-releases-revised-action-plan-on-climate-change-8311515/>

<https://www.newindianexpress.com/states/kerala/2024/Mar/06/policies-planned-to-make-state-climate-change-resilient>

<https://www.saurenergy.com/solar-energy-news/kerala-to-run-100-on-renewable-energy-by-2040-says-chief-minister-vijayan>

<https://www.thelogicalindian.com/trending/kerala-govt-releases-revised-action-plan-on-climate-change-39124>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chi/revised-action-plan-on-climate-change-on-the-anvil/articleshow/87193177.cms>

https://www.vasudha-foundation.org/wp-content/uploads/Kerala-GHG-Inventory-Report_Web_6-June-2024.pdf

방치된 차량에 법적 제재 조항 마련한 충칭시

중국 충칭시 / 도시교통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임의로 주차되었거나 고의로 방치된 ‘강시차(殭屍車)’가 계속 늘어나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충칭시는 이런 방치된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리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강시차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한 이 조례는 9월에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것으로 전망

중국에서 계속 증가하는 ‘강시차’ 문제

- 중국 전역에서 특정 장소에 자동차(汽車), 오토바이(摩托車), 자전거(自行車) 등이 오랫동안 임의로 주차되었거나 고의로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이를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는 차라고 해서 ‘강시차(殭屍車)’라고 부르는데, 중국어로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모두 ‘차(車)’로 끝나기 때문
 - 강시차는 노후화나 관리 부족으로 폐차에 가까워졌는데 차주가 수리비가 아까워서 방치하는 경우, 차주가 범죄를 저질러서 투옥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절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대부분 거리와 인도의 공용 구역이나 공공 주차장에 세워져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 일부 연식이 오래된 강시차에서는 오·폐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일으킴

강시차 문제를 겨냥한 「주차관리조례」 제정

- 거리와 인도의 공용 구역이나 공공 주차장에 방치된 강시차들을 상황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조치로 제재하는 법규가 없는 게 현실
 - 중국에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로법」, 「도로교통안전법」 등과 지방정부가 제정한 「주차장관리조례」가 있으나, 강시차에 행정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미흡함
 - 거리의 공용 구역, 인도의 공용 구역, 공공 주차장, 기업과 개인의 사유지 등 다양한 장소에 고의로 방치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임



[그림] 충청시의 한 공공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들 (출처: 상유신문)

- 충청시의 지방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는 ‘2023년 입법 계획’의 하나로 「주차관리조례 (停車管理條例)」 제정을 선정하였고, 2023년 하반기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에 주차관리조례 초안을 마련, 사회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
 - 주차관리조례 초안은 전체 7장 56조항으로 구성, 기존 조례를 통합하고 강시차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 조항을 추가함
 - 제5장 ‘주차질서 관리’에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요구, 주차 질서의 관리, 방치된 차량의 관리 등 3개 조항에 할애하여 오랫동안 임의로 주차되거나 고의로 버려진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강시차를 어떤 상황과 어느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6장 ‘법률책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
 - 지난 3월 충청시 정부는 ‘2024년 입법 공작계획’을 발표,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에 최종안을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함. 충청시 인민대표대회가 심의한 뒤 조만간 통과 및 시행 전망
- 주차관리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충청시 도시관리국과公安국은 「강시차 합동 조사 및 시정조치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 두 달 동안 조사와 단속 실시
 - 운행할 수 없는 강시 차량 9,214대를 적발, 강제로 폐차하도록 차주에게 경고 조치함
 - 거리와 인도의 공용 구역에 방치하다시피 주차된 공유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함

- 아울러 충칭시는 강시차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현황을 조사함. 2023년 말 기준 운행 불가능한 차량을 수거·해체하는 업체는 40개이며, 2023년에 이들 업체가 처리한 차량 수는 25만 2,000여 대에 달함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를 수거·해체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방치된 전기차는 오래되고 부식된 배터리의 폭발 위험이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시사점과 과제

- 이 법의 시행으로 주차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 미관 개선,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장기 방치 차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와 지자체가 참고할 만함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을 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
- 앞으로 견인 인력과 자원 마련, 친환경 폐기 시설 구축, 차량 폐기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https://www.cqcb.com/shenyidu/2024-05-24/5575567_pc.html

<https://new.qq.com/rain/a/20240322A01YJ000?>

http://www.cq.gov.cn/zwgk/zfxxgkml/jytabl/srddbbybl/202405/t20240521_13223052.html

http://cgj.cq.gov.cn/igixmj/gkyzjz/202401/tOpinion_4451.html

<https://baike.baidu.com/item/僵尸车/10116036>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79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8월 26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